

25.05.17.(토)

즉시 배포

Tel : 02-6788-3201, 3631 / Fax : 02-6788-3629

e-mail : minjooeuljiro@gmail.com

굽네치킨 · 푸라닭 가맹점주들, “필수물품 · 플랫폼 수수료 개선 필요” … 민주당에 정책제안

오늘(5/17),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책제안식 진행

프랜차이즈 치킨업계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일방적인 운영 관행과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구조 개선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공정거래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굽네치킨과 푸라닭 가맹점주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민병덕 위원장)와 함께 정책제안식을 열고,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자영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치킨분야 가맹점주 대표로는 피세준 굽네치킨 점주협의회장, 황지웅 푸라닭 점주협의회장장을 비롯하여 20여 명이 참석했고,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민병덕 위원장과 김남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제안에서 협의회는 ▲과도한 필수물품 지정에 대한 기준 마련 ▲치킨 부분육의 유연한 공급체계 구축 ▲플랫폼 수수료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방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제안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지정하는 필수물품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가맹점주 자율성과 수익성이 침해받고 있다” 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특히 치킨 부분육과 같은 주요 식자재의 경우 본사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일정 품질기준을 갖춘 상품으로 자체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 영업환경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플랫폼 수수료 및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에 대해서도 실질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들은 “플랫폼 수수료 구조는 점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관리·감독할 체계가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속가능한 상생구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점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입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가맹점주 협의회 제안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도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행사 사진]

